

慶州지역의 亭子建築에 관한 研究 - 그 建築的 類型에 관하여 -

申載億 · 金奉烈
건축학과

〈要 約〉

慶州地域에는 다른 地域에 비해 많은 亭子가 存在해 왔으나 이들에 대한 體系的研究는 물론 概括的研究도 별로 수행되지 않았다. 본 論文에서는 學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33개소의 亭子를 조사하고 이중 9개소에 대해서는 精密實測調查와 人文調查를 시행한 결과를 밝혀내었다. 또한 調查된 亭子建築의 類型學의 分類를 통해 이들의 典型을 밝혀내고 社會的, 機能的變化에 따라 생긴 平面上의 變異를 살펴보았다. 이 地域 亭子建築의 典型은 朱子의 武夷精舍를 모델로 한 玉山里 獨樂堂의 溪亭에서부터 비롯하며 이를 基地의 條件이나 機能의 差異에 따라 變化시킨 것으로 보인다. 애초의 몇 예에서 個人的 書室로 사용되던 亭子는 곧 先祖를 崇尚하기 위한 齋室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이 지역의 儒學의 뿌리에 바탕을 둔 門中 亭子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A study on the Pavilion Architecture in Kyung Joo Province - on its architectural typology -

Jai-Eok Shin · Bong-Ryol Kim
Dep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re exist many traditional pavilions in Kyung Joo Province probably due

* 본 연구는 1990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o its inhabitants' Confucian tendency, and still many pavilions are built even in these days. An outline survey covered 33 pavilions in the area and 9 of them were surveyed in extensive detail in this paper.

The typological groupings of them were shown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plan according to socio-functional change. Pavilions typically followed the prototype of 'Kye-Jung', a 17 c. pavilion after Chu-tzu's theory, although they varied in plan according to their site or function. Pavilion appeared to have originated from a personal study but its function gradually changed into more a memorial or retualistic one pertaining to a family or a clan.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亭子建築 또는 樓亭建築에 대한 기준 연구들의 동향을 보면 建築學界에서는 주로 美學의 관점에서 그리고 造景學界에서는 주로 庭園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樓亭建築은 外部空間의 構成原理를 보여주는 중요한 傳統建築物로서 類型的 특성을 가지며,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그 현대적 활용성을 생각해볼 때 傳統建築 연구에 있어 필수불가결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의 유교사회가 허물어지면서 樓亭建築物들은 그 필요성이 많이 약화되었고,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사용도가 떨어져 점차 원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정건축은 다른 건축유형들과 달리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그 남아있는 수효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경주일원에 ००亭, ००堂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亭子建築들에 대한 일차적 조사자료로서의 축적으로, 이를 통해 傳統建築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亭子建築은 그 규모가 사찰이나 궁궐처럼 크지도 않고 또한 그 용도가 住居建築처럼 직접 생활에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서 사용된

독특한 建築語彙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傳統建築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亭子建築의 가치는 건축에서의 그 가치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亭子建築은 대부분 한 마을의 또는 한 집안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던 건물이었다. 경북 옥산리의 獨樂堂 일파에서 溪亭이 전체 건물 구성의 크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¹⁾ 또는 마을의 대부분이 근대화된 현재에도 유독 亭子건물은 보존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齋室 등의 명칭으로 傳統양식을 빌어 신축되고 있는 점에서 보다시피 亭子建築은 단순한 景觀위주의 休息用 건물이 아니라 유교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자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 성리학, 풍수지리, 오행사상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慶州地域에는 그 지역적 특색때문에 많은 亭子가 존재해 있다. 1971년 발간된 慶州市誌에 언급된 亭사의 수효만 봐도 114개소에 이르고 있다. 조선 시대 후기에 편찬된 '院祠樓亭誌'에 보면 영남중심으로만 亭이 266개소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慶州地域에 많은 亭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들중 상당수가 역사상

1) 김관석 '조선시대주거 '독락당' 일파에 관한 연구', 32-39쪽 <대한건축학회지 28-121> 1984.

기록으로만 언급될 뿐 현재 존재하지는 않고 있으나, 1981년 조사된 자료²⁾에서 보아도 亭으로 언급한 것이 45개소, 齋 또는 齋室로 언급된 곳이 30개소, 堂 또는 기타로 언급된 곳이 10개소로 총 85개소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慶州地域의 亭子建築 중 학계에 잘 알려진 良洞마을이나 慶州市내의 것들은 제외하고 아직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90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산재한 40여개소의 亭子들을 일차조사하여 그 構成形式을 조사하였고 이를 분류 그 平面形式상의 類型을 추출하였고, 이중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가치가 있는 9 건물에 대해 精密實測調査를 1990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였다.人文調查는 주로 上樑文 혹은 記文, 마을 주민 혹은 관리자의 말, 그리고 慶州市誌 및 慶州郡史의 기록을 토대로 연구하였으나 시간적, 학문적 제약으로 인해 깊이있는 조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앞에서 말한 亭子建築의 정신적인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로 하겠다.

2. 경주지역과 정자건축 개관

2-1. 亭의 개념

亭 또는 亭子는 보통 여름철의 피서용, 또는 수려한 산수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자연 속의 작은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亭子의 起源은 生產共同體施設인 茅亭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風流, 觀望, 休息을 위한 건물로 보통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삼청동의 玉壺정, 또는 강원도 화천군의 谷雲선생의 華陰洞精舍 등에서처럼 亭 또는 精舍는 주택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의 기록을 보면 三國遺史에서 언급되는 天泉亭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기록상의 건물³⁾이 되겠으나 이러한 용도 및 형식의 건물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을 것이다. 李奎報는 그의 “四輪亭記”에서 亭子를 사방이 툭 트이고, 텅 비고, 높다랗게 만든 것⁴⁾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營造法式”에 나오는 亭의 개념은 사람이 머무르는 場所로 규정하고 있다. 즉 亭과 停을 같은 개념⁵⁾으로 설명하거나, 사람들이 머물어 대기하며 숙식하는 旅館과 같은 개념, 혹은 民事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가 머무르는 일종의 裁判所⁶⁾처럼 설명하고 있다. 또한 10리마다 亭을 두며 이에는 각기 그 대표를 둔다⁷⁾고 하여 일종의 거리 제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비해 樓는 이층집⁸⁾을 가르키고 있으며, 臺와 사에 대해서는 방이 없는 것이 사라고 하였고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것이 臺이며 이 중 나무가 있는 것이 樹⁹⁾라고 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형상을 가르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樓나, 臺, 사는 특별한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亭을 설명하면서는 특별한 형태에 대한 언급없이 그 機能이나 場所의 성격만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亭의 개념, 즉 정원이나 자연 속에

2) '慶州地區 文化遺蹟綜合調查目錄' 1981 慶州史蹟管理事務所

3) 신라 21대 昭智王 즉위 10년, 즉 488 AD.

4) “作豁然虛者謂之亭” 이 규보, ‘동국이상국집’,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3”, 고려서적, 1978), 81~82쪽

5) “亭停也 人所亭集也” ‘釋名’의 釋宮室부분

6) “亭留也 今語有亭留亭待蓋行旅宿食之所館也 亭亦平也 民有訟諍吏留辨處勿失其正也” ‘風俗通義’

7) “十里一亭 十亭一鄉 亭有亭長” ‘漢書’의 白官 公卿表

8) “重屋曰樓” ‘設文解字’

9) “無室曰樹” “觀四方而高曰臺 有木曰樹”

서 사람들이 머물어 쉬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건물로의 인식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設文解字’에서는 사람들이 쉬는 장소가 亭이며 亭에는 樓가 있다고 하여 樓는 亭의 하나인 것¹⁰⁾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亭子는 단순한 한가지 용도의 건물이 아니고 여러가지 용도의 건물들을 총괄하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 많은 경우 주민들이 亭子를 부를 때 ‘齋室’로 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亭子의 애초의 기능이 사회가 변하면서 많이 변화하였고, 특히 오늘날은 평소에는 거주인 또는 사용인이 없고 웃어른을 기리기 위한 齋室로서의 기능¹¹⁾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어도 조사지역인 慶州地域에 있어서는 亭, 堂, 檜, 樓, 齋, 혹은 精舍, 書舍들은 거의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약간씩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亭으로 불린 한 건물에서도 대청 오른쪽 방은 oo齋, 왼쪽 방은 oo軒으로 부르는 등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각기 場所 혹은 機能을 가르키는 명칭으로 보인다.

2 - 2. 慶州地域의 亭子 概觀

본 연구대상지역인 慶州地域은 현재 慶州市에 인접한 慶州郡 일대를 말한다. 주지하 다시피 이 지역은 신라의 왕도로서 번창하던 지역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점점 쇠퇴하여 행정구역상으로도 조선말기에 慶州府로부터 慶州郡으로 격하되었다. 조선 초기까

지도 慶州府의 府尹은 경상도의 병마절도사 등을 겸해 이 지역이 경상도 전체의 중심을 이루었다. 고려시대까지만해도 이 지역은 많은 儒學者가 권세를 누렸으며 고려말에는 宋學의 영향을 입어 더욱 활기를 띠었었다. 그러나 조선 500여년간 이 지역 출신인사가 상위직에 오른 이가 거의 없었으며 政界에서 소외되었다. 이 지역은 사림파의 본고장으로 李彥迪등의 儒學者를 배출하였으나 南人派로 남아 官界에서는 거의 소외되었다. 慶州地域의 家門으로는 신라 왕실 세력의 계통인 金씨, 朴씨 외에 土姓인 李, 崔, 鄭, 孫, 裴, 薛씨 등이 주요 세력을 이루어 왔었으나 임진란 이후 家父長社會制가 확립되면서 기존의 姓氏들을 배제하고 麗江 李씨, 하곡 鄭씨등의 同族部落이 이 지역에서 생겨났다. 이 시대를 전후하여 많은 亭子建築이 지어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身分制社會, 소위 兩班制度로 특징지울 수 있는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는 儒教理念에 따른 가족제도의 발달에 따라 각 家門을 존중하게 되었고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배경때문에 특히 同族部落의 형성이 많았다. 이들은 鄉校와 書院을 중심으로 체나 鄉約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로는 亭子建築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亭榭建築들을 慶州市誌 기록에 나타난¹²⁾ 설립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亭으로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75.4%), 여러 용도의 건물을 통칭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堂으로 부르는 경우도 亭과 마찬가지이나 齋나 精

10) “亭民所安定也 亭有樓”

11) 齋室의 기능은 金一鎮, 金東仁이 ‘朝鮮時代 齋室建築研究’(大韓建築學會論文集 6-5 40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子孫들이 모이는 場所, ② 墓祭를 지내는 곳, ③ 祭祀飲食을 준비하는 곳, ④ 飲福하는 곳, ⑤ 墓를 지키기 위한 곳, ⑥ 先人們의 亭子로 구분할 수 있다. 調查地域의 亭子들은 모두 墓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로서 ①과 ⑥의 機能을 갖고 있다.

12) ‘경주시지’ pp 771 ~ 781. 이들은 東京通誌와 慶州邑誌에 실린 것들을 옮긴 것으로 보임.

〈표 1〉 亭榭建築의 설립목적별 分類

용도	亭	堂	齋	精舍	菴	軒	閣	계
별서 또는 거처로 사용	3	1						4
특정인을 추모하기 위함	32*	2	3	2			1	40
주변의 경관을 언급함	17	2			3	1		23
서실 혹은 강학의 장소	1		1					2
용도를 밝히지 않은	33	5	5	2				45
	86	10	9	4	3	1	1	114

*32개소 중 특히 세 亭子는 精舍로 지칭함.

술은 주로 祖上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고, 菴이나 軒은 개인적 용도 즉 주변의 경치를 즐기며 생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중에 용도를 밝히지 않은 45개소를 제외한 69개소 중 58%인 40개소가 特定人,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의 先祖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3%인 23개소에서는 주로 주변의 빼어난 풍치에 대해 언급하여 대략 이러한 亭子建築의 건립위치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세워진 亭子建築은 주로 先人을 추모하기 위한 儒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건물로서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지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3. 慶州地域의 亭子建築

3-1. 慶州地域 亭子建築의 類型

慶州郡 일대의 많은 亭子들 중에서 良洞 마을에 위치한 觀稼亭, 心水亭, 水雲亭 등 9개 亭子와 玉山里 獨樂堂의 溪亭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미 잘 알려진 이러한 亭子들을 제외하고 慶州史蹟管理事務所에서 1981년 수집한 慶州地區 文化遺蹟綜合調查目錄에 실린 亭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1차로 地表調査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調査亭子一覽表

이름	소재지	규모	형태	건립년대	성격과 기능
敬止亭	강동면 호명리	3 * 2.5 계자난간	팔작지붕	1960년대 개축	安教鉉 건립 산중에 위치한 書室
歸來亭*	다산1리	계자난간	팔작지붕 6각형 평면	1755년	李哲明을 추모하여 건립
東隱亭	단구1리	4 * 1.5	팔작지붕	1962년	평범한 근대형. 마을 길가에 위치.
慕安亭	단구1리	5 * 1.5	팔작지붕	1963년	동은정과 같은 형식. 마루가 높음.
泗陽亭*	모서2리	3 * 1.5 계자난간	팔작지붕 丁자형 평면	19 c. 말	마을 뒤편에 위치. 전면에 연못
三槐亭*	다산1리	5 * 1 계자난간	가작지붕 丁자형 평면	1813년	마을 뒤편에 위치. 서향, 전면 주산봉을 바라 봄.

漁隱亭	유금3리	3 * 1.5 계자난간	팔작지붕	1960년대	季傑初를 추모하여 건립 마을전면에 들판을 향함.
柳谷亭	유금3리	5 * 1.5	팔작지붕	1960년대	마을 측면에 위치. 후면의 公政齋舍와 연결됨.
壽山亭	내남면 상신1리	3 * 1.5	팔작지붕	1980년대 개축	孫億 창건 마을 뒤 언덕 밭이
寓庵亭	안심1리	4 * 1.5	팔작지붕	1980년대 개축	마을 뒤편에 위치
臨川亭	노곡1리	3 * 1.5	팔작지붕	1960년대 중건	마을에서 떨어져 틀과 강을 내려다 봄
天山亭	명계2리	4 * 1.5 평난간(亞자)	팔작지붕	1940년대	마을 가운데 위치. 재실.
西隱亭	산내면 외칠2리	4 * 1.5	팔작지붕	1970년대	독립위치.
寬栗亭	서면 심곡리	4 * 1	가적지붕	1841년	마을 앞산에 독립. 서당으로 불림.
道峯亭	도리1리	4 * 1.5	팔작지붕 ㄱ자형 평면	1950년대	마을 뒤편 언덕 마을의 정자. 사랑방.
海岡亭	양북면 봉길리	4 * 2.5 계자난간	팔작지붕 측면진입	1950년대	마을뒤 산중턱에 위치. 전면에 ㄷ자형 연못 조성.
三樂堂	김포읍 전동리	4 * 1.5	팔작지붕	1970년대	
影鳥亭	"	4 * 1	팔작지붕	1970년대	근대형.
모길정**	건천읍 신평2리	3 * 1.5	팔작지붕	1921년	모길池에 면함.
四友亭	가족리	4 * 1.5	팔작지붕	1977년	瑛湖齋와 같은 경내
瑛湖齋	"	5 * 1	합각지붕	1822년?	폐가
遠慕亭	"	4 * 1.5	팔작지붕	1936년	사우정의 뒤편 언덕
당구정	안강읍 산대4리	3 * 1	팔작지붕	1920년대	마을 전면에 노출됨.
百源亭*	강교1리	3 * 1.5	팔작지붕 계자난간		權宣國을 추모하여 건립
梅湖亭	대동리	4 * 1.5 계자난간	팔작지붕 계자난간	숙종때	梅湖 孫德并의 講學所 근년 개수
水哉亭*	하곡리	3 * 1	합각지붕 계자난간	1728년	霞溪精舍. 鄭克後가 건립. 개천옆의 언덕위에 위치.
玉西亭	하곡리	3 * 1.5	팔작지붕	1950년대	霞山精舍
敬庵亭	외동읍 신계리	4 * 1.5	팔작지붕	1947년	三栢亭의 아래에 위치
南溪亭*	방어리	3 * 1.5	팔작지붕 3면에 뒷마루	1957년 ?	마을 뒤 언덕에 위치. 남산(금오산)을 바라봄
東廣精舍	신계리	4 * 1.5	팔작지붕	1970년대 중건	마을 내에 위치. 문중 재실
三栢亭	신계리	4 * 1.5	팔작지붕	1928년	敬菴亭 뒤 축대위에 敬菴亭과 달리 대청폐쇄 金永澤이 지은 書室
鳳棲亭*	입실2리	3 * 2 계자난간	팔작지붕	1958년	마을 뒤편에 위치. 樓마루를 높힘.
二樂堂*	경주시	3*2 + 5*1	팔작지붕	1737년	二樂堂池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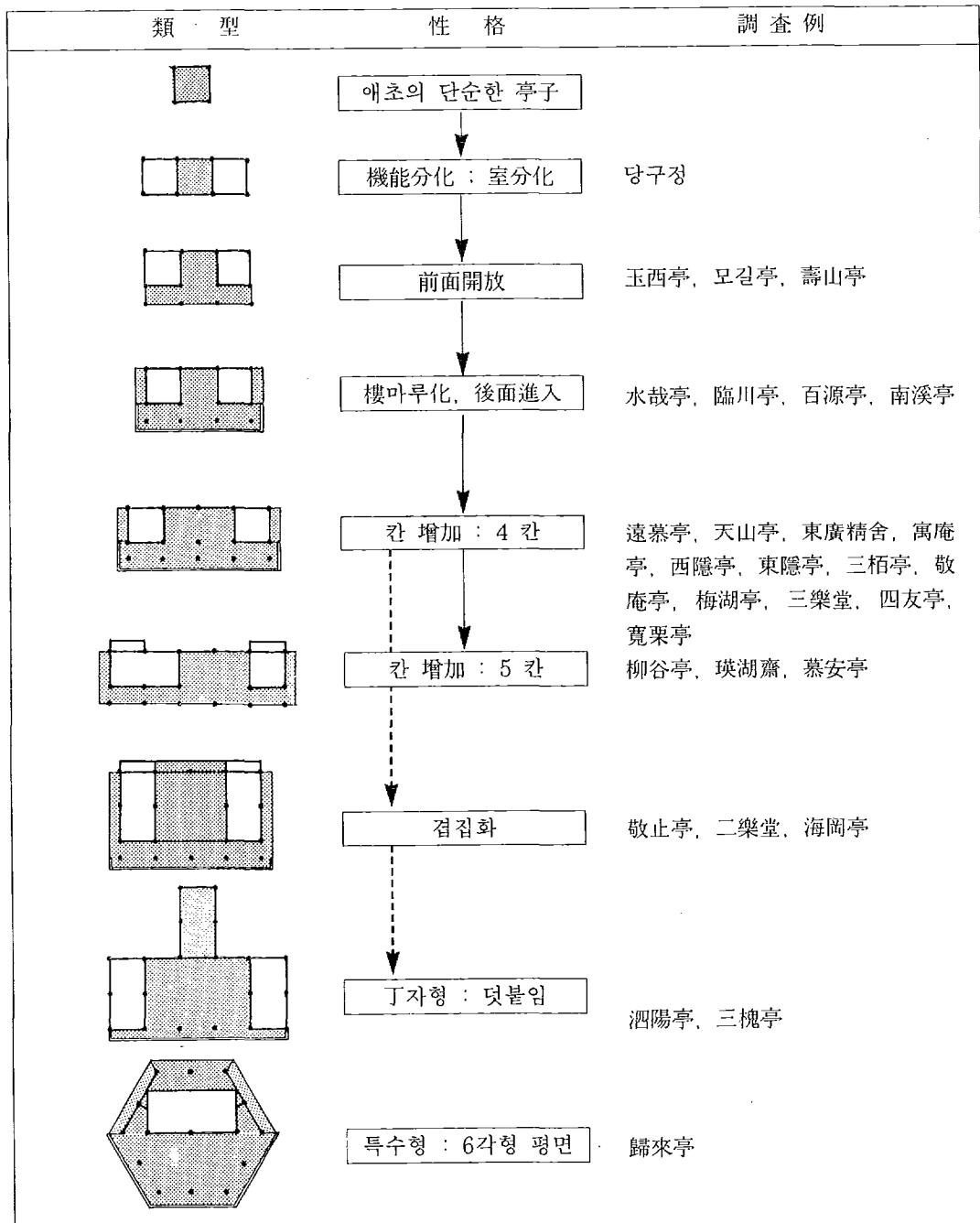
* 표시의 9亭子는 정밀설측함.

** 정확한 이름은 없고 마을 주민들이 모길정으로 부름.

양동마을의 정자들이 대부분 주거용도, 혹은 주거내의 별당형식으로 사용된 것임에 반해 조사된 정자들은 모두 주거건물과 연

결되지 않고 별도로 독립된 것들이다.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구분된다.

〈표 3〉 慶州地域 亭子建築의 類型



3-2. 慶州地域 亭子建築의 典型

〈표 3〉에서 도식화한 亭子建築의 類型은 물론 時代의 丁字建築의 發展過程은 아니다. 城地의 조건에 따라서, 또는 機能的, 個人的 諸요에 의해서 그 크기와 형태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형적인 형식을 추론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뒤편 구릉지에 위치한 百源亭을 비롯한 慶州地域 亭子建築의 전형적 形式은 다음의 몇가지 특성으로 설명된다.

1. 평면은 흘집 系列로 양측에 방, 가운데 대청으로 분화된 간살이를 갖는다.

2. 前面에 계자난간이 달린 쪽마루를 내밀었고, 쪽마루 부분 기단을 낮춤으로써 누락집과 같이 구성한다.

3. 正面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뒷면에 난 대청 뒷문이 주출입구의 역할을 한다.

4. 正面 쪽마루 부분의 領域的 獨立性을 높이기 위해 쪽마루 양끝의 경계에 나무 창살을 촘촘히 설치했다.

慶州地域에는 嶺南學派의 유명 士林들이

- 晦齋 李彥迪	玉山里 獨樂堂 溪亭
- 退溪 李滉	竹溪九曲
- 寒閭 鄭述	武屹九曲
- 旅軒 張顯光	立巖九曲
- 四宜堂 李 강	德淵九曲과 龍溪亭

이 가운데 獨樂堂 溪亭은 水哉亭에서 산 하나 너머에 있고, 立巖과 德淵은 慶州府의 관할지였다. 특히 張顯光과 鄭克後 李강 등은 서로 사제지간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이 지역의 溪亭 水哉亭 龍溪亭은 모두 유사

많이 정착했고, 그들은 깊은 계곡에 자신의 亭子를 짓게 되는 바, 대표적인 것으로 安江 獨樂堂의 溪亭, 霞谷里의 水哉亭, 迎日郡 杞北面의 龍溪亭 등이 남아있다. 이들 亭子는 모두 계곡 절벽 위에 위치하여, 계곡을 향한 正面에 樓마루를 구성하고, 출입은 모두 뒷면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대개 18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들이지만, 이후 각 마을들에서 경쟁적으로 門中 亭子(齋室)를 세울 때 이들 亭子를 建築的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계곡이 아닌 마을 주변의 경사지에 위치할 때도 지형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樓마루식 구성과 後面 出入方式이 전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8세기 이전의 溪亭들이 原形이 되어 19세기 이후의 門中 亭子의 전형이 형성된 것이다.

당시의 性理學者들은 학문 연마와 인격 수양을 위해 경치 좋은 곳에 亭子를 짓고 정원을 경영하는 것을 큰 소원으로 삼았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자연 정원은 朱子가 武夷九曲에 경영한 武夷精舍를 모델로 삼아, 자연 경관에 특징적 명칭을 붙이고 정자를 지어 人工과 自然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영남 일원의 대표적 명소는 아래와 같다.

경주군 안강읍 옥산리
영풍군 순흥면 ¹³⁾
성주군과 금릉군 일원 ¹⁴⁾
영일군 죽장면 기북리
영일군 기북면 오덕1리 ¹⁵⁾

한 형식의 亭子들이다. 계곡 절벽 위에 亭子를 짓고, 樓마루를 구성했으며 樓 밑에 긴 기둥을 반쳐 場所性을 돋보이게 한다.出入은 모두 뒷면에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다. 물론 평면 간살이나 세부 디테일의

13)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한국전통 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9, 132쪽.

14) 같은 논문, 104쪽.

15) 田鳳熙, '同族部落의 建築史의 연구(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6〉, 1989. 12., 210쪽.

차이는 있어 각각의 identity는 확보하고 있다.

4. 精密實測內容

4-1. 百源亭

소재지 : 경주군 강동면 강교1리

마을 가운데 환경사지에 위치하며, 주민들은 “정자”라고 부르며 서당의 기능으로 알고 있다. 通政의 벼슬을 지낸 權宜國(안동 권씨)을 추모하기 위해 臨御山 밑에 세운 정자이다¹⁶⁾. 1930년대에 옛터에 다시 세운 건물로 결구법이나 부재 가공 솜씨는 20세기 초의 모습을 보이지만, 공간과 형태의 구성은 이 지역 정자 건축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형적 형식의 정자 중 보존 상태와 결구가 가장 뛰어나 정밀 조사가 행해졌다. 사각형 담을 두르고 마당에는 정원을 경영한 흔적이 있고, 주변은 대나무숲을 이룬다. 건물의 정면은 누마루와 같이

구성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건물 우측의 계단을 돌아 대청 뒷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대청 뒷문에는 뒷마루를 부설하고 디딤돌을 놓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칸 건물이며 가운데 대청을 개방하고 양 측에 방을 두었다. 무고주 5량 구조로 퇴칸을 이루고, 뒷마루의 귀틀을 내밀어 쪽마루를 만들고 거기에 계자 난간을 붙였다. 석비례의 암반 위에 집을 세우고 방부분만 기단을 쌓음으로써, 뒷마루 부분의 기단은 결과적으로 1m 정도 낮추어져 정면이 누마루 집과 같이 구성된다. 쪽마루는 3면에 걸쳐져 있지만, 정면과 측면의 경계부에 나무 창살을 세워 연결을 차단하며, 계자난간도 정면에만 가설되어 있다. 동측의 방은 “養志軒” 서측의 방은 “致諭齋”的 당호가 붙어있으며, 각 방 뒤에는 돌출된 벽장이 달렸다.

홑처마의 팔작 지붕집이며, 초익공의 결구는 변형되어 봉황머리 조각이 달려있다. 초석은 낮아 기단과 구별이 안될 정도이며, 대청과 방 사이의 4분합문에는 팔각의 불발기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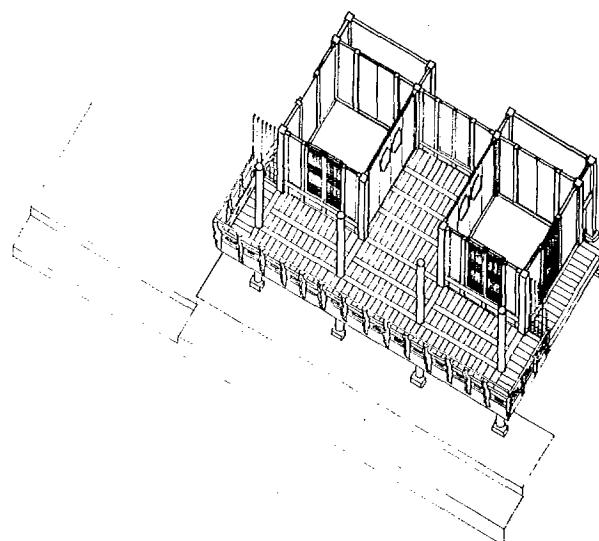


그림 4-1. 百源亭

16) 류석우, “慶州市誌”, 경주시사편찬위원회, 1971, 781쪽.

4-2. 水哉亭

소재지 : 경주군 강동면 하곡리

앞서 말한대로 이 지역 정자 건축의 원형이 된 정자 중의 하나이다. 17세기 초에 大君師傳을 역임한 鄭克後(하곡 정씨)가 낙향 후 수련하던 곳에 1728년 다시 세운 정자이다. 昆季山 밑 계곡에 위치하며, 맞은 편에는 정극후의 서당인 聖山書堂이 세워졌다.

정극후는 당대의 대학자였던 鄭述와 張顯光의 제자로¹⁷⁾, 이언적과 이황 - 정구로 이어지는 정통 영남 사림파의 일원이었다. 그는 당시의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朱子가 武夷九曲에 경영한 武夷精舍를 모델로 삼아 수재정을 건립하였다. 수재정은 계정이나 용계정과는 달리 계곡을 건너 정면을 바라보고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절벽에 인공적인 花階를 만들고 그 사이로 난 계단길을 오르면 수재정 일곽의 정문에 이른다. 담장 내부에도 화계식의 정원이 형성되며, 대청 뒷문으로 출입한다. 계곡쪽에도 2尺 높이의 담장을 둘러 연속성을 부여했다.

3×1 칸의 간략한 구성으로 양쪽에 방을 가운데 칸에는 대청을 개방했다. 뒤칸은 없이 쪽마루를 내밀어 누마루와 같이 구성했다. 초익공의 결구로 기둥 사이에는 소로를 설치했다. 홀처마의 맞배집으로 계정 용계정과 유사한 외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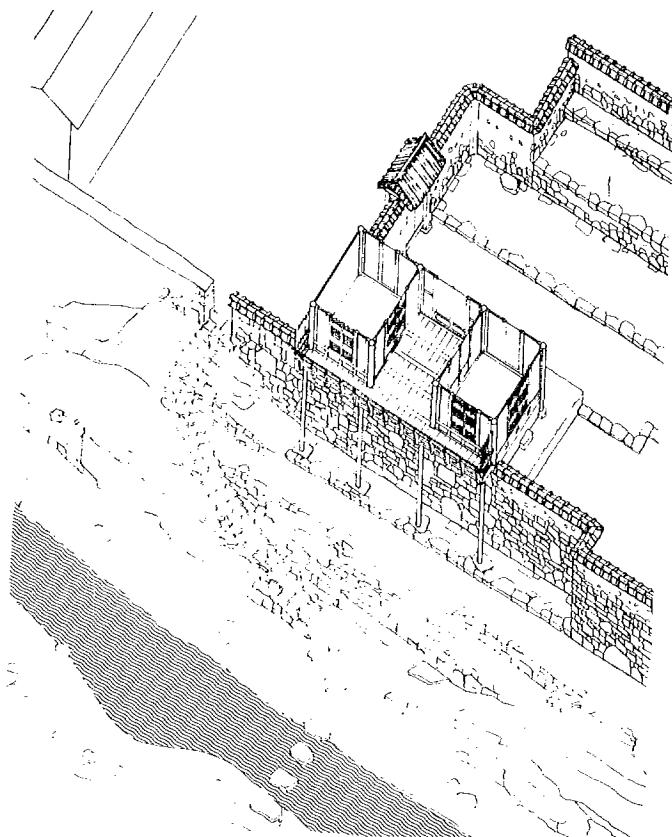


그림 4-2 水哉亭

17) “慶州市誌”, 943쪽.

4-3. 三槐亭

소재지 : 경주군 강동면 다산1리
다질마을

청안 이씨들의 문중 정자로 임진난 때 의 병으로 활약했던 李芳隣 李照隣 李有隣 李光隣 4형제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했다¹⁸⁾. 담장 밖 바로 앞에 3그루의 槐(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원래는 4형제가 4그루를 심었으나 照隣이 일찍 죽자 한 그루가 말라 죽어 3그루만 남았다 하며, 정자 이름도 여기에 유래한다.

마을의 끝에 개울을 건너 야산 밑에 자리 잡고 사방의 담을 둘렀다. 5×2칸 몸채 뒤에 2×1칸 부속채를 직각으로 붙여 전체로는 T자형으로 구성됐다. 사적기를 보건데 T자형의 현재 모습은 이미 18세기 이전에 구성된 듯하며¹⁹⁾, 현재와 크게 다른 점도 없었다. 이러한 특수형의 정자는 모서리의 泗陽亭과 함께 이 지역의 有二한 예이며, 다른 지방에서도 아직은 보고된 바가 없다. 간혹 丁자형의 정자가 있기는 하나, 모두 소규모의 통칸으로 구성된 것으로 경주의 두 예는 규모가 크고 방과 마루가 분화되는 등 사뭇 다른 형식이다.

몸채의 구성은 경주의 전형적 정자 구성을 따른다. 전면은 누마루로 구성되고 출입은 대청 뒷문으로 이루어진다. 5×2칸으로 퇴칸없이 쪽마루만 내밀었다. 양끝에는 花樹堂과 苑作軒의 두 방을, 가운데 3칸은 대청으로 개방했다. 뒤쪽 부속채는 2칸의 마루방이다. 心敬齋라는 이름의 이 부분은 冊房으로 쓰여진 듯하며, 몸채의 마루면보다 2尺이 높고 지붕은 오히려 몸채보다 낮아

두 부분의 공간 스케일이 대조를 이룬다.

지붕 구성은 한층 복잡하여 몸채의 중도리에 부속채의 종도리가 결구되어 전체 지붕을 이루며, 몸채부의 양 끝 칸은 대들보에 충량을 걸어 가적지붕으로 처리했다. 근래에 신축한 정문의 모습도 정자 형태를 흡내내 가적지붕을 단 것이 흥미롭다. 몸채의 결구는 이익공, 부속채는 민도리이며, 초각한 보아지와 화려한 화반, 대청 안 기둥 주두 밑에 솟아있는 나뭇잎 모양의 조각 등은 약간 과장된 감이 있다. 정면 가운데 두개의 기둥은 팔각형으로 기둥면에 세줄의 진 흠을 파 강조했다. 부재와 결구는 견실하고 힘있어 보인다. 외부에 면한 모든 창은 이중으로 이루어졌다. 창호지를 불인 살창 바깥에 두꺼운 판창을 덧달아 내부 침입과 비바람에 대비했는 바, 특히 두 방의 전면에 단 덧창은 주목할 만하다. 두꺼운 판창의 돌저끼를 창 상부에 달음으로써 덧창은 아래·위로 개폐하게 되었다. 다른 건축에서는 아직 유례를 보지 못한 희귀한 예이다.

지역적 전형형식을 응용한 명건축이지만 1991년에 기단부에 벽돌을 쌓고 목재에 바니쉬 칠을 하는 등 어설픈 보수공사로 인해 흠을 남겼다.

4-4. 泗陽亭

소재지 : 경주군 강동면 모서2리

辛泰承 (영월 신씨)이 건립한 문중 정자이다. 마을 깊숙한 끝 帶巖山 밑 작은 골에 자리 잡았다. 사각 담장을 둘러 경계를 지었으나, 정문 앞에 연못을 조성하고 큰 나무를 심어 정원을 경영했다. 담장 내부 뒷

18) 〈三槐亭上樑文〉이 崇禎紀元後 癸酉로 되어 있어 1633년에 창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七世孫인 李孝相이 撰한 〈三槐亭事蹟〉 역시 崇禎紀元後 癸酉로 되어 있지만, 상량과 동시에 사적기를 적었을 리 없으며 임진난부터 7세대가 지난 점을 고려한다면 1813년으로 생각된다. 즉 崇禎紀元後 四癸酉의 생략이라 할 수 있다.

19) 李孝相 撰, 〈三槐亭事蹟〉: “정자는 12칸으로 구성되었다. 양 끝의 각 2칸은 방으로 꾸몄고, 가운데 6칸은 대청으로 꾸몄다. 그 뒤의 2칸에 또 방을 두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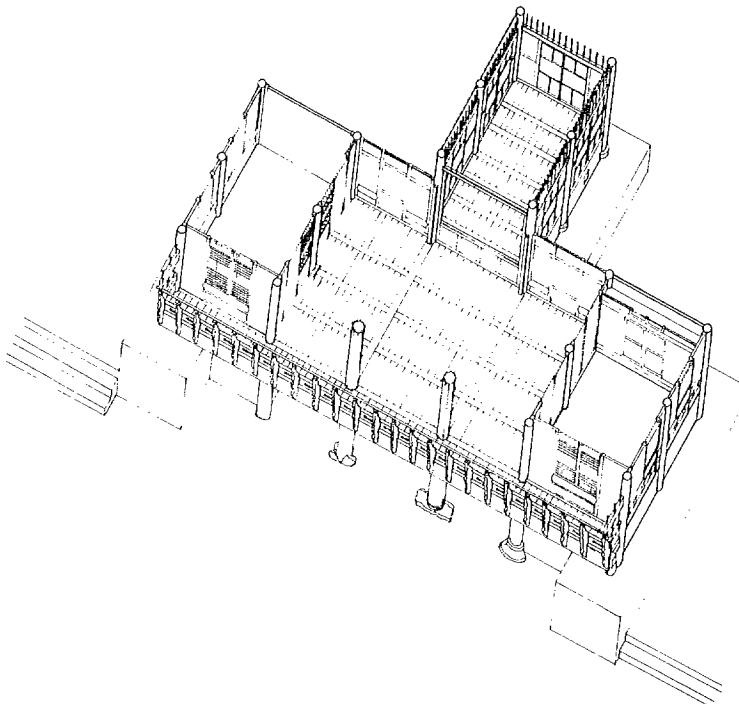


그림 4-3. 三槐亭

마당에도 화단을 만들었다. 정문은 한칸 사주문으로 양옆에 반닫을 쌓았고 길상무늬를 담에 새겼다.

이 정자는 3칸 몸채에 2칸 부속채를 붙여 三槐亭과 마찬가지로 T자형으로 구성된 특별한 예다. 그러나 三槐亭과는 규모와 공간 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몸채는 3×1 칸으로 2칸방을 서쪽으로 몰아 동쪽 끝에 마루가 구성되며, 부속채에도 1칸 쪽의 방과 마루를 두어 내부 공간을 더욱 분화했다. 뒷방인 二止堂 앞에 쪽마루를 달아 주출입 부로 삼는 동시에 몸채와 부속채의 마루와도 연결된다. 몸채부의 2칸방은 帶西齋이며 두칸 사이에 장지문을 달아 공간적 융통성을 높였다. 三槐亭에 비해 소규모이나 내부 공간 이용은 한층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몸채에는 뒷마루를 설치했는데 이는 정식의

퇴칸이 아니다. 1칸 깊이의 $1/4$ 지점에 샛기둥을 세워 퇴칸을 마련한 것이다.

몸채부는 팔작지붕, 부속부는 맞배 지붕이며, 결구도 몸채부는 초익공, 부속부는 민도리로 다른 구조이다. 목재의 상태나 가공도가 달라 3칸 몸채에 후대에 부속부를 확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記文²⁰⁾에 의하면 20세기초 이전에 이미 T자형의 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勉庵과 淵齋²¹⁾이 왕래한 것이 사실어서, 적어도 19세기 중반부터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三槐亭에서 볼 수 있듯이 부속채의 접합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T자형의 형태로 창건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三槐亭과 비교한다면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간의 변화가 심해 三槐亭의 변형형식으로 보여진다.

20) 慎窩 撰, 〈泗陽亭記〉, 1921년 (추정).

21) 면암 崔益鉉 (1833-1906)과 연재 宋秉준 (1836-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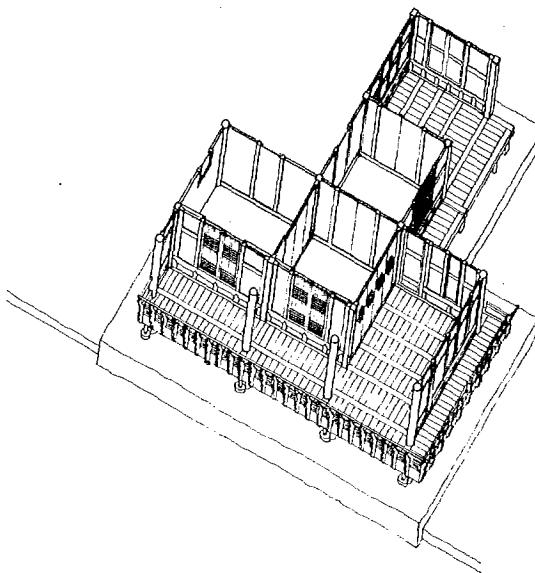


그림 4-4. 泗陽亭

4-5. 寬栗亭

소재지 : 경주군 서면 심곡리

僉中樞 벼슬을 지낸 河起賢 (진양 하씨) 을 추모하기 위해 1841년 건립한 재실용 정자이다. 심곡리는 깊은 산골마을이며 정자는 마을의 북쪽 능선 너머 또 다른 작은 계곡에 위치한다. 마을에서 거리는 불과 100m 정도이지만 앞산에 가려보이지는 않는다. 정자 담장 앞에 3칸의 齋直舍가 있고 주변은 수풀이 울창하며, 앞마당에는 참나무, 뒷편은 대나무숲이다.

건축 형식은 다른 정자와는 전혀 다르다. 4×1칸 평면은 양쪽에 방, 가운데 2칸은 마루이며, 마루에는 4분합문을 달아 완전한 폐쇄형 내부를 이룬다. 뒷면에만 쪽마루를 달았을 뿐 정면에는 뒷마루나 쪽마루가 일절 없고, 특이한 2중 기단의 위면을 뒷마루와 같이 이용한다. 더욱 특징적인 것은 지붕의 구조이다. 양쪽 방 부분의 지붕은 가직지붕인 바, 三槐亭의 경우와는 달리 가직

부분의 지붕들은 박공형이다. 따라서 지붕들의 형상만 본다면 H자형을 이룬다. 특히 한 지붕들의 구조 때문에 양측 방의 층고는 낮아질 수 밖에 없어서 삿갓 모양의 지붕가구가 그대로 노출되는 연등 천장이 된다. 이러한 구성 수법은 대구 경주 영천 일대의 오래된 건축에서 간혹 발견되며, 이 정자와 가까운 지역인 내남면 이조리의 南江書堂에서도 유사한 구성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된 정자 건축으로는 유일한 예가 된다. 전면의 중앙 기둥만 원주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주인 것도 특징적이다. 결구는 초익공계이며 대청의 전면 기둥 사이에는 소로를 달았지만, 후면은 좁고 긴 광창을 설치했다. 및걸이 3량 구조에 원판형 대공이 있다.

각 부분의 높이 차이를 적절히 설정하지 못했고 건물의 작은 규모에 맞지 않는 복잡한 구조 형식을 채택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조사된 정자 중에는 전체적으로 고졸한 수법으로 지어졌고 건립년대도 오래되었으며, 특별한 형식의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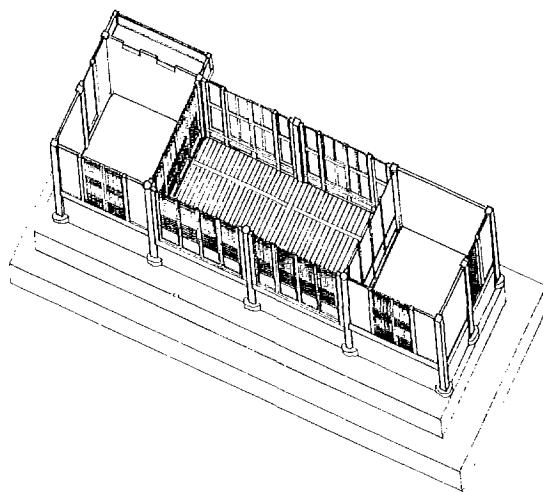


그림 4-5 寬票亭

4-6. 歸來亭

소재지 : 경주군 강동면 다산2리

佐郎을 지낸 李哲明²²⁾을 추모하기 위해 1755년에 지은 여강 이씨들의 문중 정자이다. 마을은 평坦한 지형에 조성됐고, 마을 한 가운데 정자가 입지한다. 원래는 六花亭이라 했는데 근래에 집 이름을 바꾸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대나무 숲이 울창한 가운데 담을 쳐 경계를 이룬다. 뒤편으로는 담이 없고 6칸 일자형 祭室이 부설되어 있다. 담장 안 정자의 동남쪽에 걸쳐 L자형의 연못을 팠으며, 정문에서는 작은 다리를 건너야 출입이 가능하다. 연못 주변에는 파석을 놓아 정원의 격을 높

이고 있다.

귀래정은 육각형의 평면을 갖는다. 육각형 정자의 예는 전국적으로도 흔치가 않으며 그나마 모두 단일 내부공간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것들이어서²³⁾, 귀래정과 같이 두칸 방과 마루로 분화된 큰 규모의 것은 전무하다. 또한 다른 육각정들의 지붕은 모두 육모지붕인 반면, 귀래정은 변형된 팔작지붕이어서 형태적으로도 전국 유일한 건축물이 된다. 원 이름인 六花亭은 雪花의 六出한 결정체 모습과 유사하다하여 붙여졌다.²⁴⁾

구조형식 역시 특이하다. 육각 평면의 중앙에 하나, 여섯 귀퉁이에 각 하나씩 모두 7개의 원주를 세워 방사형으로 들보를 걸었고 그 위에 별개의 팔작 지붕들을 얹어, 몸

22) 止軒 李哲明 : 중종 때의 문신으로 기묘사화로 인해 조광조 일파의 개혁정치가 좌절되는 현실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때 자신의 심정을 담은 歸鄉賦를 지었는데, 귀래정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다.

23) 박언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89., 83쪽 : 六角亭의 예로는 전국의 수많은 정자 가운데 비원의 尊德亭, 중원 三蓮亭, 영동 洗心亭 정도만 소개되어 있다.

24) “慶州市誌”, 778쪽.

체와 지붕부가 이중 구조를 이룬다. 평면과 지붕 구조가 일체화 되는 한국건축에서는 희귀한 예가 된다. 따라서 들보면의 천장과 지붕틀 중도리 부분의 천장이 분리된 이중 천장을 이루기까지 한다.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평면이 육각인 관계로 합각부분이 역 V자 모양이 되고 측면의 형태도 기괴하다. 6면의 중간 중간에 가는 사각주를 세워 처마도리를 받고 있다. 결구는 민도리이며 원형의 구조기둥에만 운공형의 보아지를 달았다.

예외적 형태와는 달리 공간적 구성은 전형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 앞부분은 누마루로 개방했으며 계자난간을 단 쪽마루를 내밀었다. 쪽마루의 끝에는 역시 나무창살을

설치했고, 뒷부분에 2칸의 온돌방을 들었다. 출입은 방 뒤의 쪽마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지역 전형적 형식의 공간이 육각형의 특이한 형태 안에서 구현된 것이다. 방을 만들고 남은 삼각형 부분의 모서리에 수납공간과 입구 마루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형태와 구조가 모두 특이한 희귀한 예이며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정자로서의 전체적 품격도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정자 건축의 유형적 흐름 안에서도 내용적으로는 맥을 같이하여, 지역성과 창조적 개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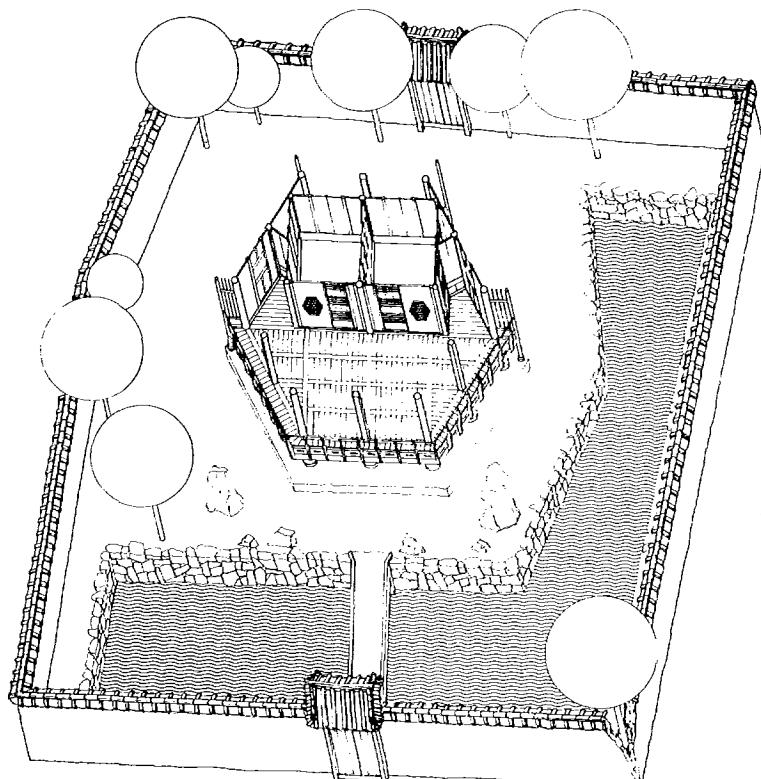


그림 4-6 歸來亭

4-7. 二樂堂

소재지 : 경주시 남산동

南山의 동쪽 화랑교육원 옆 세칭 書出池²⁵⁾ 연못에 세워진 누각형 정자이다. 앞쪽으로는 넓은 연못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풍천 任씨들의 씨족마을이 자리잡았다. 1666년의 큰 가뭄을 극복한 기념으로 이 마을 유지인 任勸이 그 다음해 건립했으며, 이후 임씨 문중의 別墅로 경영되었다. 원래는 물 위에 꾸며진 石臺 위에 대청 4칸 방 2칸의 3×2 칸 규모로 세워졌으나, 1737년 후손인 任彥芳이 방 2칸을 없애고 대청을 6칸으로 넓히는 한편 뒤편으로 긴 건물을 확장해 현재와 같이 되었다²⁶⁾.

현재는 3×2 칸의 본체와 5×1 칸의 날개채가 그자형으로 결합돼 있고, 본체의 누마루와 날개채 끝의 1칸 누마루가 각각 한 끝을 연못에 담그고 있다. 본체의 누마루를 憑虛樓라 했고, 부속된 방이 二樂堂이다. 몸체는 팔작지붕으로 높고, 날개채의 긴 지붕이 몸체 지붕 밑에 교묘히 결구되어 있다. 특히 몸체에 붙은 2칸 방은 구조적으로는 날개채에 속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몸체에 속한 이중성을 띤다. 날개채의 가운데 칸에는 중문을 달아, 날개채를 몸체 부속부와 독립된 정자부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날개채의 정자부는 1칸 방과 1칸 누마루로 구성되며, 본체와는 동일한 공간 구성이면서도 스케일의 차이를 보여 대조적인 효과를 거둔다. 건물 뒤편에 담장을 쳐 작은 뒷마당을 꾸몄고, 건물로 감싸여진 호수가에도 작은 화단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신라시대의 큰 石庭燎臺를 설치했다. 중문을 열면 작은 정원과 큰 호수가 어울어져 극적인 장면을 이룬다.

이 정자 터는 원래 절터였다고 전하며,

기단석 초석 등에 석탑재나 석등재들이 다수 사용되었다. 큰돌을 다듬어 물 위에 쌓은 석축은 힘에 넘치는 질감을 주며, 사각장주초로서 기둥을 받고 있다. 외벌대의 낚은 기단과 가공된 초석, 정교하게 결구된 목구조체가 석축부와는 대조적인 질감을 표현한다. 본체의 결구는 정통적인 초익공계로 기둥 사이에 소로를 수장했고, 날개부는 민도리의 소박한 결구이다. 본체는 무고주 5량의 구조로 합각부분에만 작은 우물천장을 달았고 나머지는 모두 연등천장으로 처리해 시원한 내부를 이룬다. 호수 쪽으로는 3분합문을 설치했고, 대청 뒷면에는 외짜미서기 판창문을 달았다.

지역적 형식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이며, 문중 재실로의 기능보다는 별서용의 목적이 뚜렷한 정자이다. 따라서 일반적 유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연못과 정자, 본체와 날개채의 조화와 변화가 뛰어난 건축이다.

4-8. 凤棲亭

소재지 : 경주군 외동읍 입실리

17세기 사람인 權英 (안동 권씨)을 추모하기 위해 1958년에 지었다. 문중의 재실용 정자로 산등성이 마을 끝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 4각으로 두른 담의 남쪽에 정문, 서쪽에 협문을 냈다.

경주 지역의 정자가 대부분 홀집형을 기본으로 구성된 데 비해 이 정자는 3×2 칸의 완전한 겹집 구조이다. 6칸의 내부는 서쪽에 2칸 누마루, 동쪽에 2칸 방, 가운데는 방과 마루가 각 1칸씩 구성된다. 건물의 향은 남향이지만 서쪽에 마을의 朝山인 금오산이 있어 전망의 축과 건물의 축이 직교한다. 이러한 갈등을 정면은 남쪽을 향하고, 누마루를 서쪽으로 길게 두어 해결하고

25) 이 연못은 三國遺事에 나오는 서출지로 알려졌으나, 현지의 사학자들은 서출지란 여기서 더 남쪽의 南山洞寺址에 있는 연못이라 추정하며, 이 연못은 단순한 二樂堂池라 추정한다. ("慶州市誌" 참조)

26) 任昌淳이 쓴 〈二樂堂重修記, 197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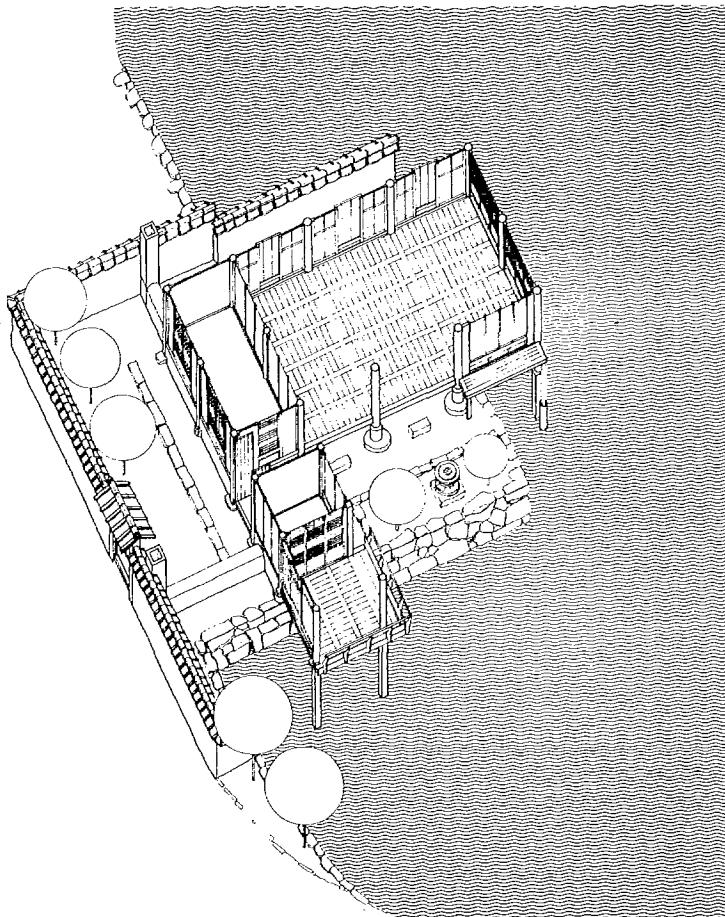


그림 4-7 二樂堂

있다. 가운데 1칸 마루는 출입부이며 각 부분으로 동선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누마루의 바닥은 출입마루보다 1.5尺 높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누마루 아래 기단을 0.8m정도 낮춰, 결과적으로 누의 높이는 1.2M정도가 되어 누마루의 격식을 갖추었다. 또한 누마루 밑에 팔각 장주초를 받쳐 다른 부분과 확인히 구분해 강조한다.

이익공의 결구이지만 달머리 조각이 침가되고 원판형 화반을 수장하는 등 해방 이후의 수법을 보인다. 3평주 5량 구조로 훌쳐마의 팔작 지붕집이다. 목재의 상태나 결구

법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기능적인 간살이나 바닥 레벤차의 구성 등 근대적 사고에 기초한 건축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해방 이후의 건축으로는 보기 드물게 견고하며 웅간한 명품이다.

유형적으로는 경주 전형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지만, 유사한 평면 간살이는 강동면 호명리의 敬止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지정은 전면에 누마루식의 쪽마루를 가진 경주 전형형식의 변형이고 보면, 경지정에서 전화된 봉서정 역시 이 지역의 원형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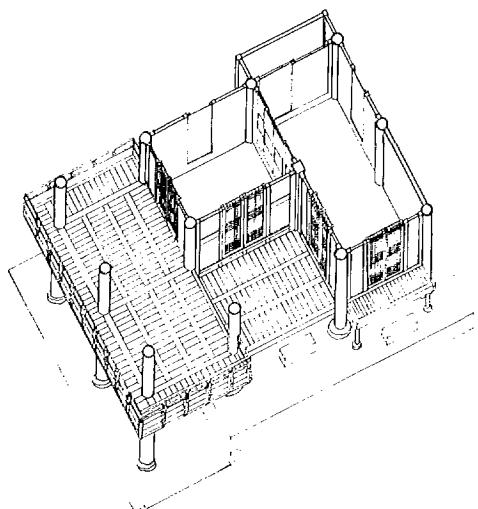


그림 4-8 凤棲亭

1칸은 대청으로 4분합문을 달아 마루방으로 꾸몄다. 특징적인 것은 전면과 좌우의 3면에 퇴칸을 구성하고 뒷마루를 설치한 평면 구조이다. 뒷면 전부에도 쪽마루를 달아 결과적으로 4면에 복도를 둔 것과 같아졌다. 이러한 구조는 일제기에 지어진 살림집 사랑채나 별당에서 자주 나타나며, 일본집들의 軒廊을 본딴 것과 같은 근세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내남면의 永思亭²⁸⁾에서도 이와 유사한 칸살이를 볼 수 있지만, 영사정의 경우는 5칸 구조으로 양측의 뒷마루가 머리 퇴와 같은 형상인 반면, 남계정의 경우는 복도와 같은 점이 차이를 보인다. 전형적인 형식과는 달리 복도가 덧붙었고, 누마루와 같은 꾸밈도 없다. 부재도 빈약하고 기둥사이에 딱지소로²⁹⁾를 붙히는 등 근세의 모습이 여실히다.

4-9. 南溪亭

소재지 : 경주군 외동읍 방어리

南溪 李台立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문중 정자로 19세기에 창건했으나 현재의 건물은 20세기 중반에 중건한 것으로 보인다²⁷⁾. 마을의 주산 산록 높은 곳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마을 전경과 들판, 멀리 금오산봉을 바라본다. 장방형으로 담장을 두르고 정면에 1칸 사주문을 세웠다. 특별한 정원 시설은 없으나 건물 뒤편에 샘물이 있다.

3칸의 칸살이를 좌우에 1칸 씩 日明齋와 影湖樓라는 현판의 방을 두었으며,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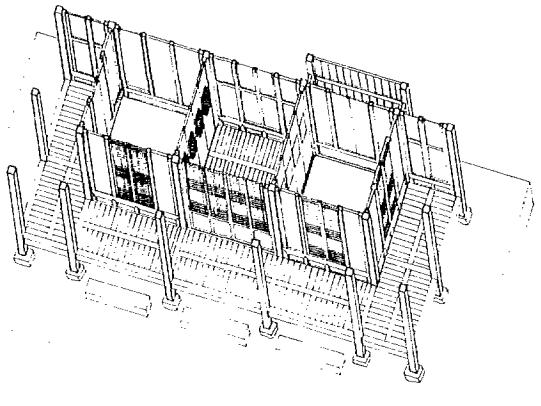


그림 4-9 南溪亭

27) 丁酉년에 쓰여진 〈南溪亭上樑文〉에는 "...今五間之齋樓..." 라 하여, 원래는 정면 5칸 구조에 전면에 누마루를 설치한 전형적 형식이었다고 추정되어 현재의 모습이나 규모와는 전혀 다르다.

28) 安啓福,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 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150쪽.: 실측 조사된 도면이 수록되었으며, 1924년에 건립된 정자이다.

29) 민도리집이나 초익공집에서는 기둥사이 처마도리와 창방 사이의 빈 부분에 소로를 배열함으로써 구조적 장식적 효과를 거두는데, 20세기 전반에는 이 부분에 정식의 소로 대신 반으로 쪼갠 소로모양의 부재를 붙여 구조적인 기능은 없이 장식적인 용내만 내는 기법이 유행했으며 이를 “딱지소로”라 불렀다.

5. 결 론

亭子란 애초에 사람들이 머무는 場所를 가르키는 용어였음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風流, 觀望, 休息의 機能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자는 講學, 居住의 場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追慕, 記念의 用途로 지어지기도 하였다. 亭子의 建築的 類型은 애초의 단순한 한칸 開放形에서 발전하여 機能에 따른 室의 分化가 일어났으며, 또한 그 規模도 각 亭子의 機能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丁字形, 혹은 六角形 등의 특이한 평면도 생겨났다. 調查地域의 亭子建築들은 주로 先祖들을 追慕하기 위해 지어진 것들로서 이는 地域의 特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이 지역에서는 '亭子' 와 '齋室'이 거의 같은 概念으로 쓰이고 있었다.

慶州地域의 亭子建築은 溪亭, 水哉亭, 龍溪亭 등 朱子의 武夷精舍에서 비롯한 觀賞用 建築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겠으며 각 마을 혹은 門中에서 亭子를 지을 때 이들을 그 建築的 모델로 삼았다. 百源亭을 비롯한 이 地域의 전형적 形式은 다음의 몇 가지 特성으로 설명된다.

1. 平面 : 홀집 系列, 가운데에 대청을 중심으로 양측에 방을 둠.

2. 前面 : 鷄子欄干이 달린 쪽마루를 설치하여 樓를 구성함.

3. 後面 進入.

20세기 특히 해방 이후에도 慶州 地域에는 門中 齋室의 성격을 띤 많은 亭子들이 지어졌고 현재도 새로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亭子建築은 19세기에 형성된 이 지역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 세워진 것은 거의 없다. 다른 지방의 亭子, 齋室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격식은 사라지고 사공과 이용의 편의가 최우선의 건축 목표로 되었다. 전면의 기단을 낮추고 난간을 없애 樓마루가 아닌 단순한 뒷마루로 구성했으며, 결과적으로 출입을 후면이 아닌 전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평면의 간사이도 홀집 뿐 아니라 겹집, 혹은 南溪亭과 같이 반칸의 퇴를 사방에 두른 형식 등 다양해졌다. 그러므로 近世 慶州地域의 亭子建築은 그 전형성이 사라지고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단순하고 다양한 형식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慶州市史編纂委員會, 慶州市誌, 경주시, 1971
- 2) 慶州郡市史編纂委員會, 慶州郡史, 경주군, 1989
- 3) 慶州史蹟管理事務所, 慶州地區文化遺蹟綜合調查目錄, 1981
- 4) 慶州市, 古都慶州, 慶州市, 1982
- 5) 羣炳林 외, 朝鮮朝庭園의原型, 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 1990
- 6) 박언곤,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89
- 7) 강신표 엮음, 한국문화연구, 현암사, 1985
- 8) 張起仁, 良洞마을 調查報告書, 慶尚北道, 1979
- 9) 沃鉉平, 中國園林建築, 清華大學校, 1985
- 10) 金寬錫, 朝鮮時代住居 '獨樂堂' 一席에 관한 研究 I, II., 대한건축학회, 1984
- 11) 田鳳熙, 同族部落의 建築史의 研究, 대한건축학회, 1989
- 12) 鄭瞳晤, 傳統的인 亭子園林의 立地特性 및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한국정원학회, 1986
- 1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이상국집 3, 고려서적, 1978
- 14) 최기수, 曲과景에 나타난 한국전통 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문, 1989
- 15) 安啓福, 누각과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 16) 金一鎮, 金東仁, 朝鮮時代 齋室建築 研究, 대한건축학회, 1990.